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GLOBAL TOP 10 CITY</b> <b>INCHEON</b>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10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도로과	담당자	하광택 ☎440-3791 황은희 ☎440-37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7일부터 원적산·만월산 터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  
**- 평일 출퇴근 각 2시간씩(오전7~9시/오후6~8시), 명절 연휴 무료화 제도화도 -**  
**- 인천시, 연간 약 240만 대 혜택 예상 -**

오는 17일(수)부터 원적산 터널 및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 통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도 제도화했다.

평일 출퇴근 오전 2시간(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2시간(오후 6시부터 8시)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연간 약 240만 대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 터널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도 통행료 면제를 홍보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터널 이용 차량이 가장 많은 첨두시간대 교통정체 해소 및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 및 무정차 통행을 시행한다” 고 말했다.

<붙임> 민자터널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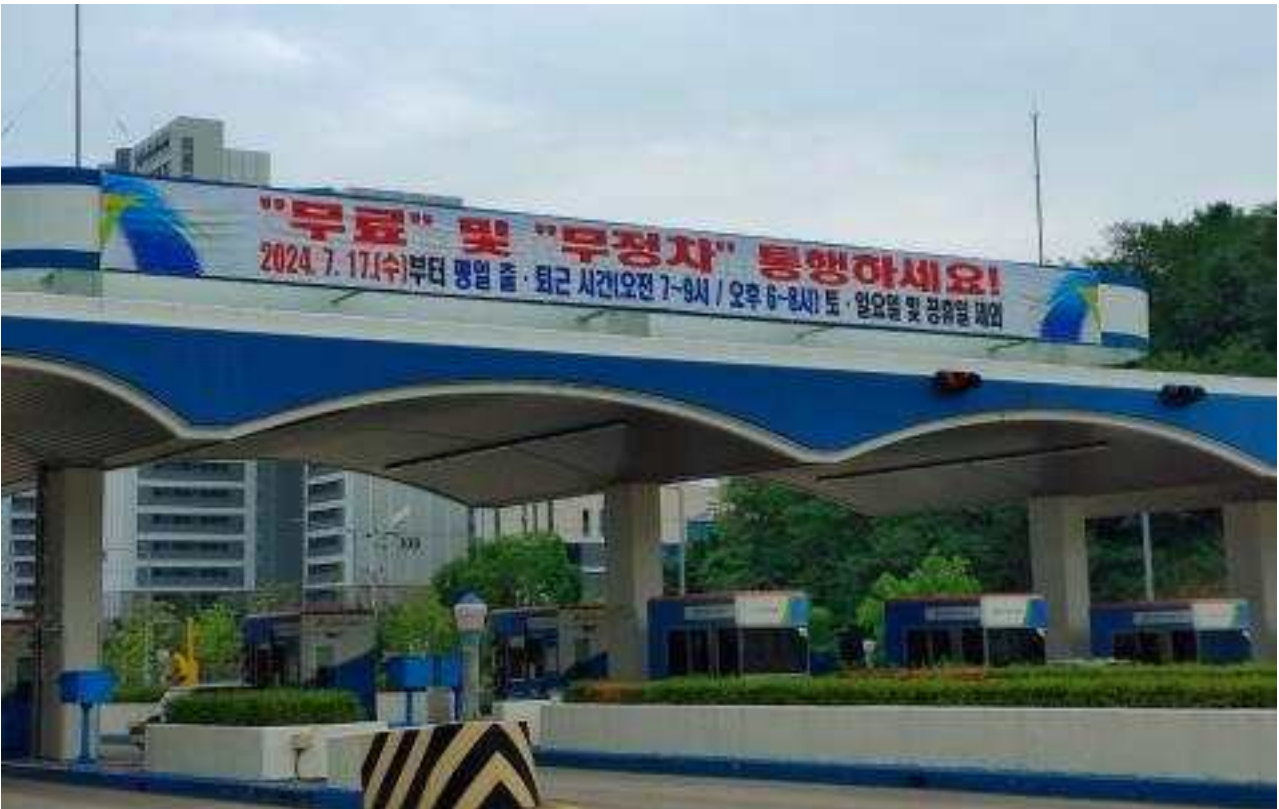
**붙임**

**민자터널(원적산·만월산) 사진**

<전광판 홍보>



<현수막 홍보>



< 원적산터널 >



< 만월산터널 >

